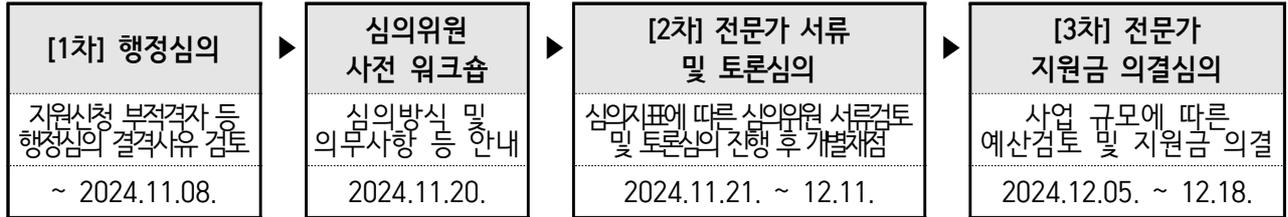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무용 -

심의일정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무용	현대무용	김명현(무용평론가), 박성혜(무용평론가), 안병순(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정재혁(Company J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교수), 홍혜전(홍댄스컴퍼니 대표,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한국무용 (창작)	김경애(월간 <댄스포럼> 발행인, 무용평론가), 김승일(중앙대학교 무용전공 교수, 김승일무용단 대표), 윤명화(윤명화무용단 대표 및 예술감독), 이지현(무용평론가), 이희자(리을무용단 단장)
	발레	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신은석(서울발레시어터 부단장,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겸임교수), 정옥희(무용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지(대한무용협회 수석부이사장), 허명진(무용평론가)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천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A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4745	22컬렉티브랩	크루 CREW	18,000,000
2	202502083	곽유하	[DECODING 2] Brainstorming	22,000,000
3	202504303	권세현	무므먼트momm 창작발레 <사계>	22,000,000
4	202506373	김민선	찌그러진 진주의 노래	17,000,000
5	202505516	김천웅	Mr. Socrates	22,000,000
6	202506374	김현우	제사, 활용	18,000,000
7	202503877	박지현	동굴에게 사랑을 요하며	22,000,000
8	202506148	서태리	관계를 수행하는 신체들끼리의 연결	22,000,000
9	202505533	아트랩보연	느림의 미학	20,000,000
10	202506291	아하 무브먼트	36.5℃	24,000,000
11	202503840	오형은	SELAH(셀라)	25,000,000
12	202500958	정한별	너의 몸을 흔들면 나의 마음은 움직일까	22,000,000
13	202501256	초록고래	조형하는 파 Coiling Wave	24,000,000

○ B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5809	He Jin Jang Dance	new 흐르는. (가제)	30,000,000
2	202501488	고현정	안트로포스	30,000,000
3	202506312	권령은	지지르르바박(미정)	30,000,000
4	202505085	김주빈무용단	마주하기까지 : 순간	31,000,000
5	202501630	댄스엔컬처워즈덤	도당 : 그 경계에서	28,000,000
6	202503299	바리나모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	30,000,000
7	202501835	백연	바다-시물라크르	30,000,000
8	202501134	사단법인 무용단 알티밋	7th Altimeets- 시선 너머의 결핍 : 관계의 심연	34,000,000
9	202503316	사단법인 무트댄스	4th BE-MUT	28,000,000
10	202505091	시나브로 가슴에	Earthing	32,000,000
11	202501993	알.에이컴퍼니	격 隔 _ 다른 사이의 그것	34,000,000
12	202503453	윤상은	메타발레: 즉흥, 구겨진	30,000,000
13	202503229	이가영	비수기	32,000,000
14	202505030	전예화	경계인(가제)	32,000,000
15	202501637	최강 프로젝트	'바람'과의 대화	30,000,000
16	202505988	춤판야무	누수	34,000,000
17	202506533	코리안댄스컴퍼니결	파우스트_11세계	28,000,000
18	202505100	해니쉬발레	[Unseen_Code]:::(Pan_Opticon)	30,000,000

○ C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2007	RohDanceProject	프랑켄슈타인	43,000,000
2	202505031	댄스시어터샤하르	창작발레 <안네 프랑크>	41,000,000
3	202503371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우물우물 (가제)	42,000,000
4	202504027	모헤르댄스컴퍼니	2025 걸다, 바라보다 그리고 서다	40,000,000
5	202505954	브레시트댄스컴퍼니	경인2 (京人) Gyeong in	40,000,000
6	202504603	뽕끼	<내쉬는 숨의 끝에서 살아가기>	40,000,000
7	202502342	안상화	일무V.2 <UNIQUE-상상화>	36,000,000
8	202502968	와이즈발레단	EDEN	45,000,000
9	202504296	윤푸름	관객, 되기 : 떨어진 조각을 이어 붙이기(가제)	40,000,000
10	202501013	이음 댄스 프로젝트	2025 IUM Dance project <하루raison d'être -a sub sequent story-> (2021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작)	36,000,000
11	202503104	전미숙무용단	거의 새로운 춤 Desalto Quasi Novus	45,000,000
12	202502806	조윤라발레단	어제 같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Ⅲ	39,000,000
13	202501641	판댄스컴퍼니	2025 판댄스컴퍼니 정기공연 <꿈틀>	45,000,000
14	202503911	황수현	싱크 디스 싱크 (가제)	34,000,000

○ C트랙 다년지원 (2024-2025년, 2025-2026년 동일작품 연속지원)

※ 가나다순 / 단위 : 원

구분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2024-2025 다년지원	1	202502968	와이즈발레단	EDEN
	2	202503104	전미숙무용단	거의 새로운 춤 Desalto Quasi Novus
	3	202501641	판댄스컴퍼니	2025 판댄스컴퍼니 정기공연 <꿈틀>
2025-2026 다년지원	1	202505031	댄스시어터샤하르	창작발레 <안네 프랑크>
	2	202504027	모헤르댄스컴퍼니	2025 걸다, 바라보다 그리고 서다
	3	202503911	황수현	싱크 디스 싱크 (가제)

※ 2025-2026 다년지원의 경우, 2025년 프로젝트 수행 후 전문가 현장평가를 참고하여 연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 확정

□ 심의총평

□ 현대무용

○ A트랙

올해 A트랙에서는 과거의 안무적 방법론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들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무척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주제에 대한 다양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문제,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인 사안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주제로 등장하면서 안무적 접근의 신선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과 나름의 메소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훌륭한 부분이었으며, 세밀한 사전 리서치 등 준비과정을 통해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객참여형 이머시브 공연형태와 배리어프리 작품 등은 신진 안무가들의 변화된 창작 경향이며 이를 확인한 것 또한 큰 수확입니다.

A트랙 심의에서는 작품의 주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현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모색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구축하고자 고민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서에 아이디어만 있거나, 배경설명만 길고 작품설명만 짧으며,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글로 설명하고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안무적으로,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지가 다소 모호하고, 무대미술과 영상 계획은 세밀하지만 안무적 전략 제시는 명확하지 못한 경우, 상당 부분의 지원 내용이 사뭇 소재 중심주의에만 그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타 장르와의 협업이 움직임보다는 다른 부수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끌고 나가려는 것에 그쳐 아쉬움으로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도와 시행착오는 예술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지원자들이 자신의 작업 세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습니다. 개념의 깊이를 실질적 표현과 연결하는 도전은 예술인으로서 필수적인 과제이며, 현대무용의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진 예술인들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예술 언어를 구축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기대합니다.

○ B트랙

B트랙 지원작은 트렌드를 견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사 중심의 작업보다는 춤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작업, 개념적 접근, 다양한 매체의 변화와

활용에 적극적인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작품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가 높은 만큼 기술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에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극장에 대한 다양한 실험(관객과의 새로운 관계성 탐색, 극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 개발 등), 형식개발(이머시브 공연과 AI 등의 활용 등)도 눈에 띄는 큰 변화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공연과의 연계 가능성, 장르 파괴와 다양한 인적 구성의 작업들, 이전 작업에 대한 지속을 통한 예술성 향상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창작 활동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트랙인 만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관점에서 작품 계획에 충실하고, 혁신적으로 분야별 예술인들과 협업하는 전문성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트랙의 경우, 재공연을 계획하는 예술가들의 비중이 높아 우수 레퍼토리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살폈습니다. 재공연은 기존 작업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통해 창작적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입니다. 이에 재공연의 경우 초연 당시 미흡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보완 방안이나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지원서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기술과의 융합이나 전시와 공연의 혼합 형태가 많았던 점은 흥미로웠지만, 협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장르에 대한 리서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 주제와 동떨어진 모호한 협업은 관객들에게 예술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원작은 작품의 주된 개념, 사용하는 오브제와 표현 그리고 최종적인 구조화에 있어 더 발전적인 사유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훌륭한 지원작 수에 비해 제한된 예산과 높은 경쟁률을 이유로 우수한 기획들이 모두 선정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B트랙은 예술인들이 작업 세계를 구체화하고 창작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심의가 지원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C트랙

뛰어난 역량을 가진 예술인들의 계획안을 먼저 읽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한정된 지원금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이미 작업 세계가 구축된 예술인들이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탐구와 새로운 도전에 몰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작적 접근은 현대무용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오랜 연륜을 가진 경험 많은 단체의 세밀한 활동 계획에서 높은 구현 가능성과 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의도에 적합한 움직임을 개발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리서치 과정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인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는 작업 세계가 구축된 예술인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긍정적인 면모입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한국 현대무용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인하였고, 국제적인 소통 관점과 교류 경험을 통한 관찰 및 표현, 메소드 제시에는 각각의 독창적인 개성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간의 경험과 연륜에 의거한 작업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안무적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트랙에 지원한 지원자들보다는 다양성이 뒤떨어지는 경향도 일부 보였습니다. 또한 작가주의적 성향으로 특정 메소드에 집착하거나 특정 주제에 함몰되어 안으로만 소급해가는 경향은 오히려 무용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주제에 천착하되, 무용미학의 발전을 깊이 염두에 두고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금은 개인 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지원인 만큼 특히 C트랙에서는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C트랙의 예술인들에게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과 창작 방식을 탐구하는 과감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열정과 노력은 현대무용의 가능성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무용(창작)

○ A트랙

A트랙의 경우 젊은 안무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실험성에 가장 초점을 두었지만, 작품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작들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과학발전에 따른 현대 사회 문제, 자아실현의 과제 등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식을 춤을 통해 언어화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였습니다. 또한, 서정적인 작품이 주를 이루는 한국무용이 갖추기 어려운 '스토리'를 가진 작품도 있었으며, 관객에게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관객참여형 공연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신선한 안무가로서 공연에 대한 새로운 형식적 시도를 모색하며 관객과 만나고자하는 의지를 보인 점이 고무적입니다.

반면 자신만의 색채가 강한 안무가가 드물었고, 기존 창작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머무르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부 지원작의 공간 선택 역시 자신의 작품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라기보다, 단지 극장을 벗어나는 목적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무용의 창작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용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는 후순위에 두었습니다.

예술창작활동지원 A트랙 지원자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춤 창작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한국춤 안무가들의 등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B트랙

본인의 예술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단계인 B트랙의 경우, 작품의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리서치를 기반으로 했는지, 안무를 통해 드러난 무대언어가 얼마나 자기표현적이며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서류에 대한 태도, 감각이 상당히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원금 사용 계획 역시 타당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성, 아이디어와 시놉시스의 짜임 또한 훌륭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자연과 환경, 현대사회 속 인간 존재의 의미 탐구, 신체에 대한 탐구, 전통적 원형을 분해하고 해체하며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향의 창작적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소재에 대한 접근은 정체된 창작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트렌드인 미디어아트와의 협업도 많았으며, 이머시브 형식을 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꽤 오랜 시간 활동하며 검증된 안무가의 등장도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전의 도식화된 움직임이나 나열식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상당수인 점, 몇몇 출연자들이 다수의 작품에서 중복되며 요즘 유행하는 움직임으로 짜깁기를 한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B트랙 지원자들의 면면을 볼 때 무용계가 세대교체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특히 한국 창작무용 분야에 우수한 안무자들이 증진으로 진입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C트랙

C트랙 심의는 예술인으로서 자신만의 가치 철학에 기반을 두고 한국 창작무용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작업, 주제의 깊이와 그것을 구현해 내는 안무가만의 무대언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성능력 과 미장센의 색채, 관객의 관점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원작의 주제는 현대인의 인간관계, 내면의 갈등과 치유 등이 주를 이뤘으며, 한국춤의 동시대적 변화에 방향을 맞추며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멀티미디어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춤을 원형으로 연출을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는 작품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대적인 방법론으로 한국춤에 접근하는 안무가의 출현은 앞으로 한국춤의 새로운 창작 흐름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나,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서류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계획에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연작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완성된 작품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다소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탄한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작의 경우, 재연에 있어서 그 독창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형식에 대한 고민은 안무가들에게 핵심적인 사안이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작업도 보였으며, 시각적으로는 화려하나 작품 구성 측면에서는 과하게 추상적이고 극적인 구조가 빈약하여 작품성의 내적 빈곤 상태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C트랙은 예술인으로서의 철학과 안무방식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단계입니다.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창작하는 안무가는 전통과 현대의 중간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무용 창작분야가 그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발레

A트랙

올해 지원작들에서는 동시대적 시각이나 관심을 다루려는 시도, 매체 확장의 측면에서의 시도, 동서양 요소의 융합에 대한 관심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 발레의 고전주의에 대한 재고나 창작적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각각의 창작적 선택이 단지 소재주의나 미적 스타일화의 피상적 차원에 그칠 우려를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보인 작업을 참고하여 그 역량을 가늠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작품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무대 연출에서도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나 안무 구성에서도 참신함이나 예술적 깊이가 부족하였습니다. 우수한 작품 구상과 연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음악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 참여 경험을 통해 예술적 영역을 한층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발레 움직임의 어휘 나열을 넘어서는 연구가 필요하며, 매 작품 소재를 바꾸어가며 시놉시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에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의 예술적 구심점을 찾고 안무적 방법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용수 섭외에 있어서도 매번 같은 무용수들의 캐스팅하기보다 작품 배역에 맞는 캐스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이 젊은 안무가들에게 창작 작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래의 작업 세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트랙

B트랙 지원작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소재들과 다양한 무대 연출을 통해 움직임 연구와 예술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무 방법의 새로운 영역을 선보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또한 짜임새 있는 기획과 협업 과정을 통해 컨템퍼러리 발레를 재해석하는 지원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의는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부한 예술적 접근을 지양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이나 역량을 고려하였습니다.

일부 단체는 주제 선정과 본인의 예술활동 방향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작품 의도와 표현 방식, 창작 과정에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성도나 구체성에서 우수한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가 뚜렷하게 갈렸는데, 이는 B트랙 발레 안무가들 사이에서 발레, 컨템퍼러리 발레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 따라 안무적 역량이 점차 차이 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대중 지향적이거나 상업적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대중성과 상업성 자체가 지양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예술적 성취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단체 간에는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발레 분야의 창작활동은, 전통적 장르의 확장 혹은 창작이라는 면에서 발레라는 장르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이 아무쪼록 창작활동 현장에 의미 있게 작용하며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C트랙

C트랙의 경우, 타 트랙 대비 내용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기보다, 다년간의 창작활동으로 발레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기존의 작품을 통해 레퍼토리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클래식 발레 움직임의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려는 작품이 많았으며, 특히 대중과의 공감대를 강조하면서 레퍼토리 발전을 위한 예술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지닌 작품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체로 기존작의 재연 혹은 재구성이 많았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중견 예술인(단체)로서의 방향성과 깊이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밀한 탐구와 의미 확장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존작의 재연과 재구성의 경우, 문제점과 개선점, 발전하고자 하는 점에 대한 구체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견 안무가인 만큼 소재주의 너머 예술성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업이 창작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온 단체들의 활동에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또 다른 과감한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